

스마트팜(지능형농장) 등 농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부처간 협업 본격 가동

- 농어촌공사·코트라 “스마트팜(지능형농장)·농기자재 수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중점지원 무역관 설치, 물류센터 활용, 전시회 우대 등 수출지원 협력 강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농기계 등 유망 농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처간 협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합동으로 6월 15일 「농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산업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공사와 코트라가 양 기관의 해외 수출 지원 기반과 농산업 전문성을 결합시켜 유망 농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지능형농장)·농기자재 수출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①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지원 강화, ②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중점지원 무역관 설치 및 특화 지사화 사업 추진, ③ 전시회·박람회·상담회 참여 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유망 농산업 분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출경험이 많지 않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지 지원 거점 마련, 정책자금 공급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농식품부와 산업부는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양 기관이 수출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최근 전 세계가 기후 변화와 식량안보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팜(지능형농장)과 농기자재 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며, “우리 농산업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비롯, 여러 관계부처·유관기관들과 협력하는 체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01-2471)
		담당자	서기관	차희수 (044-201-247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상용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하원석 (044-203-4023)